

생생리포트

■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

강현주(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 서울시 30평형 아파트 가격 비교

박지희(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서울시 창업 및 부도 추이

강현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paranbadah@sdi.kr.kr

I. 최근 5년간 서울의 창업 동향

1. 서울의 창업 추이

- 2002년부터 현재(2006년 기준)까지 서울의 창업은 2005년을 제외하고 감소세를 나타냄
 - 서울의 신설법인수는 2005년에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4% 감소하여 2006년 현재, 19,801개를 나타냄
 - 이는 5년전(2002년)의 25,426개에 비하여 22.1%(-5,625개) 감소한 수치임
 -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는 2002년으로, 2002년 서울의 신설법인수는 25,426개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창업이 가장 둔화되었던 시기는 2006년으로, 2006년 서울의 신설법인수는 19,801개에 그침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창업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최저치를 나타낸 시기는 2003년이고, 최고치를 나타낸 시기는 2005년임
 -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신설법인수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2003년에 -11.7%의 최저치를 나타냈고, 2005년에는 5.5%의 최고치를 나타냄

<표 1> 서울의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2~20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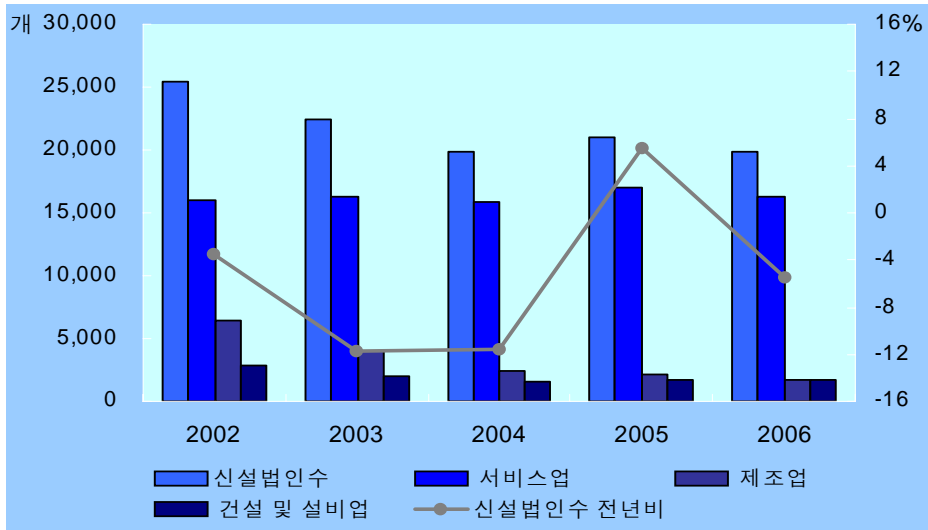
(단위: 개, %)

		신설법인수*	농·임·어업 및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설비업	서비스업
2002년	업체수	25,426	164	6,382	2,888	15,992
	비중	100	0.6	25.1	11.4	62.9
2003년	업체수	22,448	43	4,066	2,045	16,294
	비중	100	0.2	18.1	9.1	72.6
2004년	업체수	19,847	21	2,402	1,553	15,871
	비중	100	0.1	12.1	7.8	80.0
2005년	업체수	20,939	37	2,128	1,747	17,027
	비중	100	0.2	10.2	8.3	81.3
2006년	업체수	19,801	26	1,717	1,714	16,344
	비중	100	0.1	8.7	8.7	82.5
증감률	2002년 대비	-22.1	-84.1	-73.1	-40.7	2.2
	연평균	-5.4	-15.7	-22.3	-1.8	-1.0

주: * 창업은 제도적 장치의 부재로 개인의 창업신고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어 통계청에서는 개인창업을 제외한 신설법인수만 발표하고 있다.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특히, 전년대비 최저 증감률(-11.7%)을 나타낸 2003년과 비슷한 수준의 전년대비 증감률(-11.6%)을 나타낸 2004년에는 서울의 신설법인수가 각각 2,978개, 2,601개씩 감소하여 서울의 창업이 큰 폭으로 축소함
 - 이는 2003년과 2004년 중 서울의 제조업 창업이 둔화된 데 기인함
 - 최근 5년 동안 감소세를 지속하는 서울의 신설법인수 추이가 2005년에 1,092개 증가를 나타낸 것은 2005년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증가폭이 확대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임
- 2002년 이후 산업별 창업에 변화가 나타남에 따라 신설법인수의 산업별 비중이 달라짐
- 2002년 기준 신설법인수의 산업별 비중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25.1%, 건설 및 설비업이 11.4%, 서비스업이 62.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06년 현재 신설법인수의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이 8.7%, 건설 및 설비업이 8.7%, 서비스업이 82.5%로 나타나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는 제조업의 창업은 줄어들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창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제조업: 25.1%→18.1%→12.1%→10.2%→8.7%, 서비스업: 62.9%→72.6%→80.0%→81.3%→82.5%)
 -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창업에 있어 산업별 비중이 제조업은 16.4%p 하락하고, 서비스업은 19.6%p 상승하여 상승과 하락폭에 있어서도 서비스업에서 더 큰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 서울의 산업별 신설법인수 추이(2002~2006년)

2. 서울의 산업별 창업 추이

1) 제조업 창업 변화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제조업 창업은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냄
 - 2006년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2002년의 6,383개에 비하여 73.1%(-4,665개) 감소한 1,717개임
 -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제조업의 신설법인수 연평균 증감률은 -22.3%를 나타내어, 제조업이 서울에서 신설법인수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산업이며, 서울의 창업에서 제조업의 산업 비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줌
- 2002년 이후 서울의 제조업 창업은 2003년과 2004년에 감소폭이 확대됨
 -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수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시기는 2004년으로, 전년대비 40.9%(-1,664개) 감소하여 이 때 서울의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2002년 신설법인수의 절반 이하에 그침
 - 2003년에도 서울의 제조업 창업이 크게 둔화되어 전년대비 36.3%(-2,316개) 감소함

2) 제조업의 세부업종별 창업 변화

- 서울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세부업종별 창업 변화를 살펴보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제조업 전 업종에서 감소세를 나타냄
 - 5년전(2002년)에 비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업종은 기타 제조업으로 2002년 대비 증감률은 -94.8%이고 그 뒤를 기계·금속업(-81.7%), 섬유 및 가죽(-80.0%), 자동차 및 운송장비(-76.9%) 등이 이음
 - 최근 5년 동안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은 섬유 및 가죽업이 -30.5%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음·식료품(-29.0%), 기계·금속업(-27.7%),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26.6%) 등의 순으로 감소함
 - 특히, 출판 및 인쇄업은 5년전 대비 증감률(-32.4%)과 최근 5년간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8.5%)에서 모두 가장 적은 감소폭을 나타내어 서울의 제조업 중 신설법인수의 변화가 크지 않은 산업임을 보여줌

〈표 2〉 서울의 제조업 세부업종별 신설법인수 추이

(단위: 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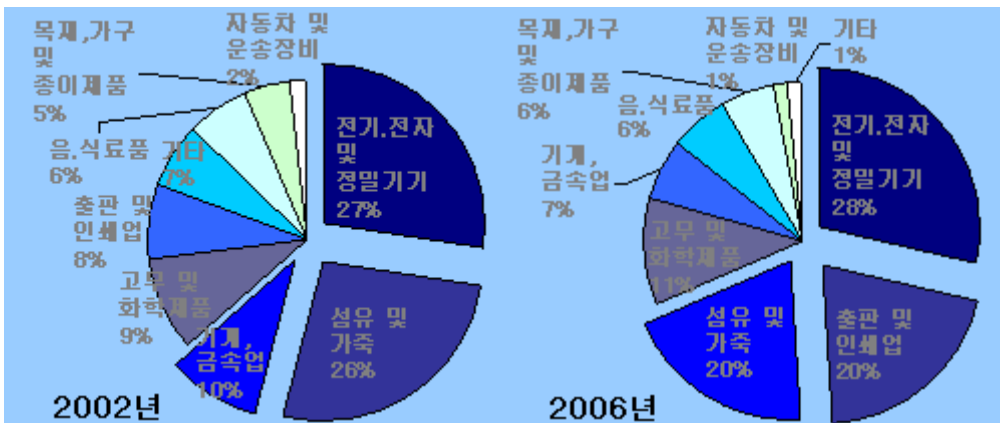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2년 대비	연평균
제조업 신설법인수	6,382	4,066	2,402	2,128	1,717	-73.1	-22.3
음·식료품	406	255	183	150	101	-75.1	-29.0
섬유 및 가죽	1,682	877	456	335	336	-80.0	-30.5
목재,가구 및 종이제품	298	327	142	128	99	-66.8	-19.8
출판 및 인쇄업	509	414	329	368	344	-32.4	-8.5
고무 및 화학제품	588	421	250	255	184	-68.7	-23.7
기계, 금속업	617	348	131	167	113	-81.7	-27.7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	1,751	1,278	777	578	494	-71.8	-26.6
자동차 및 운송장비	104	108	98	56	24	-76.9	-26.4
기타	427	38	36	91	22	-94.8	-4.9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제조업 창업은 세부업종별 비중에서도 변화해 음
 - 2002년 서울의 세부업종별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가 27.4%(1,751개)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섬유 및 가죽이 26.4%(1,682개), 기계·금속업이 9.7%(617개), 고무 및 화학제품이 9.2%(588개)를 차지함

- 2006년 서울의 세부업종별 제조업 신설법인수는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가 28.8%(494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출판 및 인쇄업(20.0%,344개)이 그 뒤를 이었으며 다음 섬유 및 가죽(19.6%,336개), 고무 및 화학제품(10.7%,184개) 등의 순위임
- 5년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서울의 제조업 중 전기·전자 및 정밀기기는 2002년과 현재 모두 창업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업종임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5년 전과 비교하면 섬유 및 가죽, 고무 및 화학제품 역시 서울의 제조업 중 창업 비중이 높은 업종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2002년에 세번째로 창업 비중이 높았던 기계·금속업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신설법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여 현재 제조업 세부업종별 창업 비중도 6.8%로 떨어짐
- 5년전 대비 증감률과 전년대비 연평균 증감률에서 가장 적은 폭의 감소를 나타냈던 출판·인쇄업은 신설법인수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 2006년 현재 서울의 제조업 창업에서 두번째로 비중이 높은 산업이 됨



<그림 2> 서울의 제조업 세부업종별 비중 변화

3) 서비스업 창업 변화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서비스업 창업은 소폭 증가함
 - 2002년 서울의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15,992개이고 2006년에는 16,334개로, 5년 전 대비 2.2%(352개) 증가함
 -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 연평균 증감률은 0.6%로, 서비스업 창업에 있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서비스업의 신설법인수는 16,000~17,000개의 보합세를 유지함
 - 서울의 서비스업 창업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제조업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서울 전체 신설법인수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어남

4)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창업 변화

- 서울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세부업종별 창업 변화를 살펴보면, 5년전(2002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업종은 기타서비스업임
 - 2002년 서울의 서비스업 중 기타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440개이고 2006년에는 1,062개로, 2002년 대비 141.4%(622개) 증가함(최근 5년 동안 기타서비스업 신설법인수의 최고치: 2005년 1,344개)
 - 그 뒤를 이어 부동산 및 임대업(31.2%, 362개), 운수업(18.3%, 146개) 등이 증가함
- 서울의 세부업종별 서비스업 창업이 5년전 대비 크게 감소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임
 - 2002년 서울의 숙박 및 음식점업 신설법인수는 312개이고 2006년에는 177개로, 2002년 대비 43.3%(-135개) 감소함(최근 5년 동안 숙박 및 음식점업 신설법인수의 최저치: 2005년 88개)
 - 그 다음 교육서비스업(-11.7%, -44개), 도매 및 소매업(-8.4%, -552개) 등이 소폭 감소함
- 최근 5년 동안 서울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신설법인수 연평균 증감률은 기타서비스업이 29.3%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이 -2.2%로 가장 낮음

〈표 3〉 서울의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신설법인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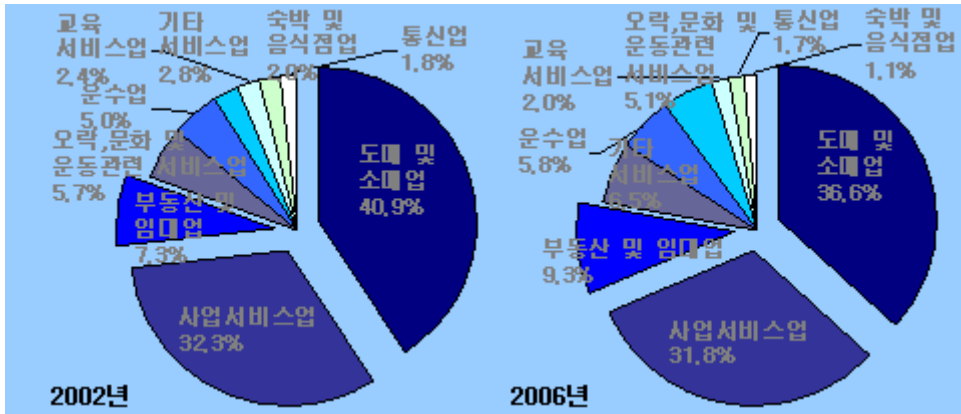
(단위: 개,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2년 대비	연평균
서비스업 신설법인수	15,992	16,294	15,871	17,027	16,344	2.2	0.6
도매 및 소매업	6,533	6,474	6,162	5,987	5,981	-8.4	-2.2
숙박 및 음식점업	312	156	128	88	177	-43.3	0.5
운수업	799	806	988	1,404	945	18.3	8.2
통신업	288	158	171	322	284	-1.4	9.9
부동산 및 임대업	1,160	1,271	1,360	1,491	1,522	31.2	7.1
사업서비스업	5,168	5,937	5,099	5,367	5,204	0.7	0.7
교육서비스업	377	193	258	312	333	-11.7	3.1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서비스업	915	664	641	712	836	-8.6	-0.6
기타서비스업	440	635	1,064	1,344	1,062	141.4	29.3

자료: 중소기업 조사통계시스템

○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창업 비중에 대한 순위 변화는 크지 않음

- 2002년 서울의 세부업종별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4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사업서비스업은 32.3%, 부동산 및 임대업이 7.3% 등이 그 뒤를 이음
- 2006년 서비스업 신설법인수는 도매 및 소매업이 36.6%, 사업서비스업이 31.8%, 부동산 및 임대업이 9.3% 차지함
- 5년 전(2002년)과 비교해보면, 하위 업종들의 순위에서 변화가 있으나 뚜렷하지 않고, 상위 업종들은 5년 전과 동일하나 비중의 변화가 있음
- 도매 및 소매업과 사업서비스업의 비중이 각각 4.3%p, 0.5%p 하락하였고 부동산 및 임대업은 2.0%p 상승하여 최근 부동산 열풍이 반영된 결과임을 보여줌
- 하위 업종 중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서비스업은 2배 이상 비중이 상승하여 5년전 대비 증감률에서도 최고치를 나타낸 것과 같은 결과임(2002년 2.8%→2006년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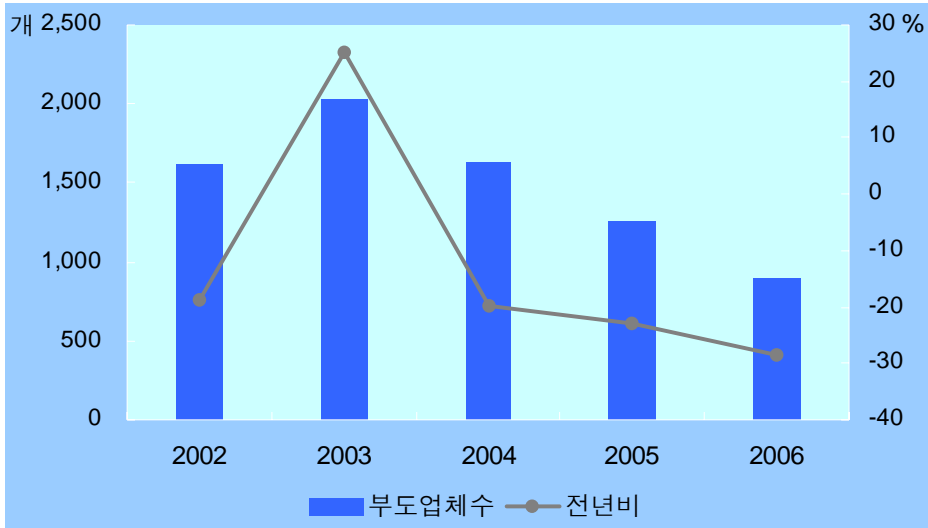


<그림 3> 서울의 서비스업 세부업종별 비중 변화

II. 최근 5년간 서울의 부도 동향

1. 서울의 부도 추이

- 2002년부터 현재(2006년 기준)까지 서울의 부도는 2003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감소세를 유지함
 - 서울의 부도업체수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1.6% 감소하여 현재, 895개를 나타냄
 - 이는 5년전(2002년)의 1,623개에 비하여 44.9%(-725개) 감소한 수치임
 -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부도가 많았던 시기는 2003년으로, 부도업체수는 2,031개로 나타남
 - 최근 5년 동안 부도가 적었던 시기는 2006년으로, 부도업체수는 895개로 나타남
 - 2002년 이후 서울의 부도업체수가 급증했던 시기 역시 2003년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은 25.1%의 최고치를 나타냄
 - 2002년 이후 서울의 부도업체수가 급감한 시기도 2006년으로, -28.6%의 전년대비 증감률을 나타냄



<그림 4> 서울의 부도업체수 추이(2002~2006)

2. 서울의 형태별 부도 추이

1) 법인형태의 부도 변화

- 2002년부터 현재까지 대기업 부도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에 7개 대기업이 부도처리 되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고 2006년에는 부도한 대기업이 없었음
- 중소기업의 경우, 부도가 가장 많았던 때는 2003년으로 1,435개 기업이 부도처리 되었고, 부도가 가장 적었던 시기는 2006년으로 부도수는 668개로 나타남
 - 서울의 중소기업 부도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12.2% 감소하였고, 5년전(2002년)에 비해서는 44.8%(-543개) 감소함

2) 개인업체의 부도 변화

-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인업체의 부도수는 2003년에 594개로 가장 많았고, 2006년에는 227개로 최저치를 나타냄
 - 서울의 개인업체 부도는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9.2% 감소하였고, 2002년에 비해서는 44.5%(-182개) 감소함

<표 4> 서울의 부도업체수 추이

(단위: 개, %)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증감률	
							2002년 대비	연평균
부도법인	대기업	3	2	7	4	0	-100.0	18.5
	중소기업	1,211	1,435	1,172	911	668	-44.8	-12.2
개인업체		409	594	448	339	227	-44.5	-9.2
부도업체수*		1,623	2,031	1,627	1,254	895	-44.9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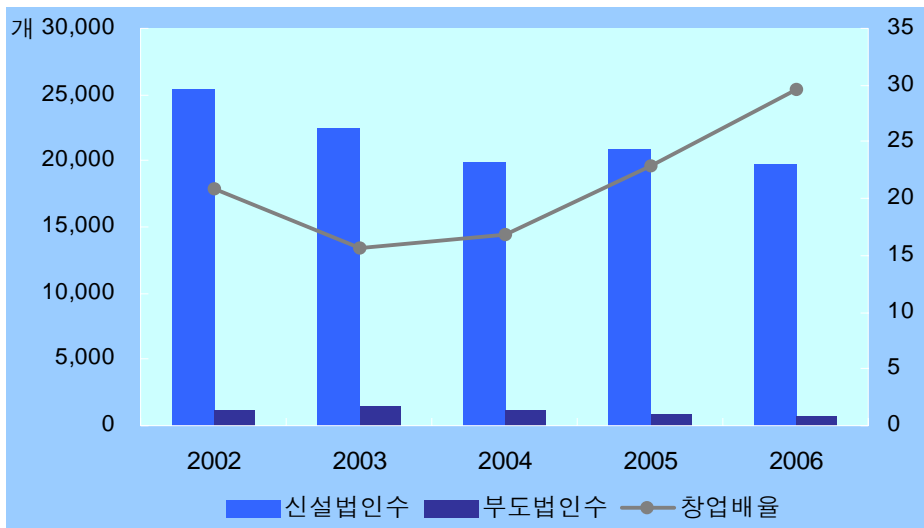
주: * 부도업체수는 대기업·중소기업의 부도수를 합한 부도법인수와 개인업체 부도수를 합한 것이다.

자료: 금융결제원

Ⅲ. 최근 5년 동안 서울의 창업배율

○ 2002년부터 현재(2006년 기준)까지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수를 뜻하는 창업배율¹⁾은 2003년까지 감소하다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증가함

- 2002년 창업배율은 20.9이고, 2003년에 전년보다 5.3p 하락한 15.6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 29.6으로 나타남



<그림 5> 서울의 신설법인 및 부도법인수 추이(2002~2006년)

1) 창업배율=신설법인수/부도법인수